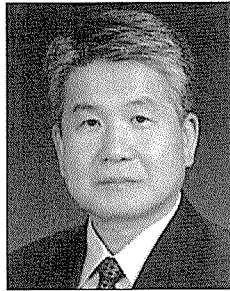


석유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인(動因)



이 상 곤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석유소비 증가추세의 둔화와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최근 우리나라 석유산업을 둘러싼 주요한 여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 국내 석유소비는 산업의 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 그리고 자동차 대수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지난 1970년대 연평균 11.3%, 1980년대 연평균 6.9%, 1990년대 연평균 7.6%로 이어지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소비증가율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6대

석유소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 석유수요의 증가추세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석유수요전망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국내 석유수요는 2015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증가율의 둔화는 무엇보다 GDP성장률의 둔화에서 비롯되며, 가정상업부문 연료의 가스대체와 더불어 과거 수요증가를 주도했던 수송부문의 수요가 점차 포화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1990년대 후 반 석유산업에 대한 핵심적인 규제들을 대폭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고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방하였다. 즉,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도의 폐지, 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 정제시설 신·증설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정유사와 주유소간 직거래 허용 등으로 주요 규제사항이었던 가격규제와 진입 및 설비규제가 모두 제거되었다. 그리고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없애고 주유소운영 등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였다. 이와 같은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개방화 조치는 소비자정제를 원칙으로 각종 규제 속에서 성장해온 국내 석유산업을 국경 없는 경쟁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석유수요 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과거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석유제품의 내수시장 규모가 크다는 사실은 석유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시설과 기술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였으며, 꾸준한 수요의 증가율은 기존 투자에 대한 불안을 덜고 새로운 투자와 기술을 채용하여 효율적인 시설을 구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석유산업 초기에 정부의 보호적 규제와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세계 5위의 정제시설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경쟁력의 원천은 내수규모의 성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정책은 단기간 내에 석유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찍이 포터(M. E. Porter)는 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동인이라 할 수 있는 경쟁력의 결정요소(determinants)를 수요조건, 요소부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구조와 전략이라는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정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influencer)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포터는 경쟁력 결정요소들 사이에 상호 강화하는 힘이 작용하여, 한 가지 결정요소의 이점이 다른 결정요소들의 이점을 창출하거나 향상시키는 보완체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세계 5위의 정제시설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경쟁력의 원천은 내수규모의 성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자연자원에 의존적인 석유산업 특성에 비추어 석유의 부존자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세계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상류부문(유전개발, 생산)과 하류부문(정제, 판매)의 수직적 연계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점하여 왔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국내 석유수요 규

모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애로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 부존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석유수요는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2015년까지의 연평균 석유수요 증가율 전망치인 1.4%는 1990년대 미국의 연평균 석유수요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앞으로 석유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과거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는 석유산업의 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석유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존속은 많은 부분에서 왜곡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질적 고도화에 따른 일반적이고도 자연스런 결과이며, 석유산업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석유산업의 종합 에너지서비스 공급산업으로의 전환이다. 석유산업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그러나 이제 국내 석유수요는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용하여 타 에너지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종합적인 에너지서비스 공급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발전사업 및 지역난방사업으로 진출과 보일러, 냉난방기기, 조명기기 등 석유제품 사용기기의 제조사업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

고 석유제품의 판매에 더하여 품질관리, 고객관리, 하위 유통업체에 대한 경영지도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산업으로 이미지를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원유 확보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세계 원유생산능력은 중·장기적으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은 향후에도 높은 중동의존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해외 유전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잠재적인 대규모 원유공급지역인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전개발사업은 탐사광구와 생산광구 사업간의 적정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석유유통부문의 합리화이다. 석유제품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판매-수송-저

유-생산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IT(Information Technology)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간격은 계속 축소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전자적 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석유제품의 공급이다. 정제단계에서는 배연탈황 장치에 의한 연소 후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해지거나 배출규제 방식이 총량규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저유황 연료를 사용한 황산화물 저감방식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송단계에서는 연안 유조선의 수송분담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의 확충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경유에 대한 탈황시설 능력을 확충하고, 휘발유의 불순물질을 최소화시킨 청정휘발유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친화적인 석유이용기기 개발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저 질소산화물 석유연소기기 개발, 휘발유 대체연료 개발 등의 분야에 타 업계와의 공동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석유산업의 국제화이다. 우리의 석유산업은 중국 등 석유수요가 급증하는 인근 아시아 국가의 수입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정유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정제능력과 석유제품 수출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작정유공장의 건설 등 해외 하류부문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산업의 해외 진출은 해당 국가의 석유수요 상승률, 하류부문의 자유화 정도, 석유가격구조, 정제시설의 신·증설계획, 경쟁자의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거 석유산업의 규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제는 석유시장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환경에 적합한 경쟁규칙을 마련하여 시장참여자들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석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

에너지 절약은
우리의 손으로 부터
우리의 손으로 부터